

<사조선록 역주4>, 주지번, 강알광 저, 은몽하, 우호 편, 김한규 역, 소명출판, 2012.

발제 4. 강알광, 『유헌기사』

**강알광의 『유헌기사』 해제**

□ 『유헌기사』는 명말의 문학지사인 한림원편수 강알광이 명 희종 천계 6년(1626: 조선 인조 4년)에 황태자의 출생을 조선에 알리기 위해 정사로 임명되어 사신으로 다녀갔다가 기록한 여행기

□ 강알광이 조선에 갈 때는 만주가 흥기하여 요동을 석권하고 명의 장수 모문룡이 압록강 입구의 동강진에서 농성하고 있던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어서, 황태자의 탄생을 알리는 본래 임무 외에도 모문룡을 탐색하여 견제하고 조선을 피난한 요민(遼民)을 보호하는 등 여러 가지 임무를 복합적으로 띠고 방문

□ 한중 사절단의 내왕 통로였던 요동이 여진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알광은 부득이 해로를 이용해서 내왕

- 4월 중순까지 등주에서 머물다가 4월 23일에 출항
- 묘도 열도를 경유해서 5월 19일에 압록강 하구에 있는 피도에 도착한 후, 모문룡 만남
- 6월 13일에 한양으로 입성, 조서를 반포하고 인목대비 국상 조문
- 6월 21일에 귀국길에 올라, 윤 6월 15일에 철산에 도착해서 모문룡과 다시 전략 의논
- 6월 22일 출항하여, 묘도 열도를 거쳐, 7월 중순 등주에 닿아, 8월 22일 북경 도착

□ 강알광은 조선에서 청렴 강직한 태도로 조야의 관심 모음

- 조선 입국 전부터 명사의 사절단에 동행하여 각종 작폐를 일삼았던 상인들의 탑승 엄금
- 조선 측의 일체 물품 공급을 사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례적 선물까지도 물리침
- 조선인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켜 전례 없이 생사(生祠)를 세우는 선물까지 얻고 귀국

□ 강알광은 사익 대신 국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 보임

- 평안도 일대로 밀려 내려온 요민의 구호와 모문룡에 대한 지원 요청하여 협조 얻음
- 조명 양국의 전통적 사대-조공 관계 유지하려 노력
- 타 문학지사와 마찬가지로, 예론을 개진하여 소복을 벗고 예복으로 조서 영접하도록 강요

**사신 파견 경위: 371~373쪽**

□ 황태자가 태어났음에도 요동이 후금에게 넘어가서 조선에 사신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으나, 모문룡에 대한 견제 등의 사유까지 겹쳐서 강알광을 파견

○ "천계 을축년에 황태자가 태어나서, 조정에서 벼슬하는 신하를 보내 천하에 경사를 널리 알렸는데, 고사로는 해외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조선만이 중국과 견주었으니, 예신이 제본을 갖추어 올려 성지를 받았다"

※ 조선은 계속하여 사대자소의 전통에 가장 충실했으며, 명 역시 문학지사를 파견하여 창화 외교를 이어갔음을 알 수 있음

○ "이 때 요가 망해 육로가 막힌 지 오래되어, 조정에서 벼슬하는 신하를 보내지 못했다"

○ "이에 앞서 조정에서 벼슬하는 신하들이 어지러이 동강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여, 마침 왕간의가 상소해서, 마땅히 관원을 파견해서 살펴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항상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즉시 조칙을 반포하여, 두 신하가 편도로 곧장 가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였다"

※ 후금의 배후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철산 부근 피도에 이른바 동강진을 설치하고 주둔해 있던 명의 장수 모문룡은 명의 통제 밖에 있어 우려의 대상이었음

### 승선 준비와 해로 여정: 373~387쪽

□ 이전과 같이 요동을 통과하는 육로를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등주에서 승선 준비

※ 등주는 중국 산둥반도의 최북단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 수당대부터 중국 북방의 주요 군사요충지 역할을 담당

□ 상인들이 사행에 동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 "상인은 국가의 체모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금해야 하고, 가인 외에 의생과 묵객은 데리고 가지 않으며, 여부는 필요가 없다."

○ "감히 금령을 어기며 간사한 상인을 사사로이 숨기거나 수졸을 거짓을 충원한 자가 있으면, 체포하여 죄상을 캐묻고 법으로 다스려 임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다."

□ 묘도 열도를 거쳐, 피도로 조선에 들어왔는데, 묘도의 풍광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

### 모문룡과의 대담: 387~395쪽

□ 모문룡은 명 조정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이를 눈치 챈 후금의 역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음

○ "조정은 견제함에 공이 없었다고 해서, 모 대장을 힐책했다."

○ "오랑캐는 모 대장이 급하게 해직될 것임을 알고, 거짓으로 강을 건너 그를 유인했다."

○ "오랑캐는 군사를 되돌려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면서 싸우며, 좌우 날개를 풀어놓아, 우리 병력을 에워싸니, 죽이고 상처를 입힌 수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

○ "임술일에 모 대장이 같이 철산의 관공서로 들어가며, 자기를 탄핵한 자들에 대해 말했는데, 발끈해서 말이 점점 격렬해졌다."

□ 강왈광은 모문룡을 대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명 조정의 신료들의 입장을 대변

○ "실제로 다른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견해가 각각 달라서 잠시 아뢰었을 뿐일 것이다."

○ "대장군은 해상에서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며 오래 동안 무거운 권한을 쥐고 왔으니, 조정에서 게으름을 피우며 한 번도 묻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를 하는 요령이 아니다."

- “대장군은 왜 이것을 조목조목 장주에서 밝히지 않고, 노기등등해서 말다툼을 벌이고 쓸데 없이 시끄럽게 다투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 “모 대장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지 않으니, 모문룡의 고생을 알지 못한다. 혹 시나 상태의 위엄을 맞아 조금 더 이뤄낼 수 있다면, 견제의 한 국면을 끝내게 해서 반드시 보답하여 부응하리라.>고 했다.”
- “장군이 틀렸다. 장군은 도보로서 대장군의 지위에 이르렀으니, 보답하고 싶다면 조저에 보답하면 될 뿐이다. 장군은 반드시 이들을 멸한 뒤에 조정에서 만호후의 식읍을 먹는 것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녕이 사국의 일원으로 있어, 당연히 그 일을 대서특필해서 국가를 위해 장군에게 보답할 것이다. 더구나 장군은 스스로 장군의 공로 조목을 갖고 있으니, 지금 유망민들을 달래어 귀부하게 하고, 차례로 목을 베거나 사로잡아, 오랑개가 요인을 써서 요지를 경작할 수 없게 하였으니, 이는 장군의 공이다. 그 외의 다른 것은 아직 감히 알지 못한다. 나는 비록 일개 나약한 서생이지만, 낮은 성품이 고루하고 고집스러워, 일을 만나 입에서 말이 나올 때는 있는 대로 토로하여 꾸밈 수가 없어 진짜인 것처럼 하지 않는다. 남의 공을 보고서도 혹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지워서 없애버린다면, 모두 사사로움을 품고서 나라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것이다. 하늘의 도는 신성하고 밟아서 이렇게 한다면 돌아갈 때 바다를 건널 수 없을 것이다.”
- “장군은 지나치게 꼼꼼하게 따지는 것을 양해해서 돌아올 때는 방략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 조선에서 대신들이 인사를 나와 선물을 바치려고 했으나 강왕광은 거절

- “먼 곳에서 번거롭게 노고를 묻는 것은 국왕의 예이니, 다만 그 뜻만으로 족하다.”
- “마음을 바랄 뿐, 물건은 원하지 않는다. 사람이 태어나서 매일 한 번씩 배불리 먹으면 될 뿐인데, 대접을 받아 번거로운 비용을 얼마나 견뎌야하고 이 지방의 백성을 괴롭혀야 하나.”
- “원접사가 말하기를 <상인들이 이르지 않아, 소방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수요에 맞추어 공급하는 물품을 없애게 한 일과 같은 것은 사실 처음 들어보는 것으로, 과군은 이 일로 인해 놀라고 두려워하여 제대로 받들어 모시지 못했다고 책망하였으니, 좌우의 대신들이야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했다.“
- “왕이 예절을 잘 지켜 경의를 표했지만, 나는 비용을 줄여 어썩은 펼치는 것이다.”

#### 한양으로 가는 길: 395~408쪽

□ 요동과 조선의 접경지대에 명나라 난민들이 유입되어 매우 혼란한 상황을 유발하고 있었음을 상세히 묘사

- “철산에서 안주까지, 요민과 조선인이 섞여 있는데, 요민은 버려진 자갈땅에 씨를 뿌려, 언제나 결실을 얻지 못했다. 조선이 또 물자를 공급해서 구제했지만, 땅이 멀고 구석져서 이익이 미치지 못해, 여러 달 풀뿌리를 씹으며 허기를 채웠다. 살 곳을 잃고 천리를 떠돌아다니며 배고파 우니, 다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 이전의 사신들과 다르게 조선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는 모습을 보임

- “그대들은 엄중하고 화목하게 구역을 설정해서 지키되, 마음대로 배를 떠나서 조선 백성들에게서 사소한 이익을 구하지 말라.”

○ “너희의 마음이 반드시 내 마음과 같지 않다면, 너희가 어찌 조선에 폐를 끼치며 이익에 빠져들지 않겠는가. 장차 조선에 가서 폐를 끼쳐 나라를 욕되게 한다면, 나는 너희를 나중에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왕이 관원을 보내 문안했는데, 세 가지 예를 더함이 있어 역시 이를 물리쳤다.”

#### 조서를 둘러싼 예론: 408~413쪽

□ 조선은 인목대비의 국상 기간이었기 때문에 인조가 소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강알광이 예를 따져 시비함

○ “조정의 경사는 공적인 일이고 나라의 상사는 사적인 일이다 신하된 자는 사적인 일로 공적인 일을 폐할 수 없다.”

○ “왕이 다시 아뢰기를, <충과 효는 하나의 도이니, 자식이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려는 마음은 원래 군부에게 바른대로 고할 수 있다.>고 했다.

○ “무른 조선도 우리 중화의 가르침과 같아서, 경사가 있으면 가복을 입었는데, 왕은 어찌해서 사자가 중화의 예로써 국왕을 두텁게 대함을 듣지 못하고, 국왕은 오히려 중화의 풍속으로 스스로 처신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 강알광은 결국 자신의 입장을 관철

○ “오늘의 거동은 예에 어긋남이 있는데, 사자가 이를 알고서도 말하지 않거나, 말하고서도 힘쓰지 않으면, 죄가 사자에게 연좌된다. 사자가 의로움에 대해 거듭 말했는데도 끝내 잘 따르지 않는다면, 죄가 국왕에 연좌된다. 왕이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조서는 반드시 열지 않을 것이니, 왕은 여러 번 되풀이하여 깊이 생각해서 소홀함이 없게 하시라.”

○ “왕이 마침내 답하여 이르기를, <감히 명령대로 옷을 바꿔 입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 한양 체류와 조명 외교의 문제: 413~426쪽

□ 조선의 선물을 거절하는 강알광의 태도는 한양 도착 후에도 일관성 유지

○ “내가 굳이 받지 않으니, 왕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는 자들이 무능하다고 화를 내면서, 통정사와 도승지를 특별히 죽이겠다는 명을 내렸다. 그때 이들 세 명이 문밖에 오래 동안 꿇어앉아 <살려 달라>고 호소했고, 관반과 원접사도 땅에 엎드려 애달프게 청했다.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이른바 스스로 죽인다 하는 것은 바로 그대들의 한 집안 사람이다. 무릇 오고 갈 때는 각자의 도가 있는데, 어찌 서로 강요하는가. 또 왕이 이런 일로 그 신하를 죽인다면, 어찌 사신을 예우한다고 하겠는가>라고 했다.”

□ 그러나 요민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

○ “요민이 영락하여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어, 귀국에서 보살피고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들 외롭게 남겨진 무리가 불쌍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자신은 풍족한 대접을 받겠는가.”

○ “우리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요민의 위급한 정도를 생각하면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힘써달라고 잠 시 대의로써 권했지만, 왕은 말을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날에 이르러 왕이 말했다. <재앙을 만나 여원 나라가 되었는데, 근래에 요민이 이 땅에

서 섞여 먹으니, 주인과 객이 다함께 곤궁해졌다. 무릇 천조가 사해의 큰 힘으로도 공급하여 구제하기 어려운데 탄환 같이 작은 나라에 무엇이 있겠는가. 다만 '가죽이 없어 털이 안전하게 붙을 수 없음'을 두려워할 뿐인데, 천조에서는 아직 이 점을 돌아보아 생각하지 않았는지>라고 말했다.”

○ “천하는 일가이니, 땅의 나눔은 있어도 백성의 나눔은 없다.”

○ “내가 <이 물이 안주까지 이르는가>라고 물었더니, 모두들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또 <유람을 따르는 여러 분들은 즐거운가>라고 물었더니 <즐겁다>고 했다. 내가 <오랑캐가 아직 죄를 백복하고 스스로 죽지 않은 것이 한스러울 뿐이라>고 했더니, 들은 자들이 놀라고 근심하며 안색을 바꾸었다.”

○ “저녁에 원접사가 아뢰어 말하기를, <국왕께서는 근래에 천사가 요민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눈물을 떨어뜨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국왕께서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명을 내려 황해도와 충청도에서 쌀을 운송하도록 재촉하셨다>고 했다.”

□ 모문룡에 대한 조선의 불만을 인지

○ “마음속으로 모 대장에 대해 화가 난 것이 심했지만 이전의 작칭으로 책봉해달라고 청했을 때 모 대장이 실제로 주선해서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감히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했다. 모인 자리에서 대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귀엣말로 소곤거릴 뿐, 마디마디 끝날 때마다 내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요민의 위급한 정도를 생각하면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 강알광은 조선에 호의를 보이려는 행동을 계속하고 실제로 조선이 매력을 느낌

○ “등주에 이르러 조선에서 돌아온 요민 한 명을 찾아, 그 나라 말을 차례 따라 옆에 하고, 내가 그것을 써서 식별했다. 그러나 끝내 익숙하게 습득하지는 못하고, 틈틈이 하나씩 들어 조선인에게 말했더니, 조선인들이 모두 서로 돌아보며 깜짝 놀라며 갔다.”

○ “저녁에 왕 간의와 왕의 상을 조문하는 일을 의논했는데, 왕이 이를 듣고서는 영구가 나갔다고 사양해서, 몰래 관반에게 제문의 원고를 적어서 바치도록 했다.”

○ “이날 온 나라 인민들이 길을 가로막고 막배했다.”

※ 명사 열전에 강알광의 행적을 기록한 기사에서 ‘조선에 사신으로 가면서 중국물화를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조선에서 돈 한 푼 챙기지 않아 조선 사람들이 그의 깨끗함을 가슴에 새겨 비석을 세웠다’는 내용을 적음

## 모문룡과 2차 대담: 427~433쪽

□ 강알광은 다시 철산으로 돌아와 모문룡과 이전에 헤어질 때 한 말을 처리

○ 모 대장은 이에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오랑캐는 교활하지만 미쳐있어, 대체로 동산에 비해 쉽게 뜻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 “대장군은 실로 능히 정에 부대 하나를 연습시켜 해동을 위엄 있게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이니, 그런 뒤에 유관과 약속해서 길을 나누어 진군한다면, 점차 개철 등 여러 성을 회복하고, 그 요해지를 움켜잡아 궁지에 빠뜨릴 수 있으니, 이는 마치 동굴 안에 쥐를 막아 스스로 굶어 죽게 하는 것과 같다.”

□ 조선이 모문룡에 대해 가지는 반감을 의식하여 모문룡이 조선으로부터 군량을 징색하려는 시도를 차단

- “모 대장이 말하기를, <지금 걱정거리는 군량이 없다는 데 있다>고 해서, 내가 말했다.”
- “무릇 군량을 충분하게 하는 법은 군사를 잘 골라 뽑는 것만 못하다. 이를 비유한다면, 두 공기의 밥으로 두 사람을 먹이면 두 사람이 굶주리지만, 한 사람을 먹이면 한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
- “또한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장군은 외딴 곳의 군대로 홀로 서서 조선의 성원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때때로 양식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조선에서 모두 취하고 있으니, 만에 하나라도 조서노가의 사이에 틈이 생겨 두 마음을 품는다면, 장군이 밭 디딜 땅을 갖지 못할까 걱정된다.”

#### 귀환과 황제 보고: 433~440쪽

□ 요민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대조선 강경책 방지할 여지 남김

- “나는 상주문 머리의 요민의 사정과 형세에 관한 한 부분에서, <대개 요민은 요민인데, 쓸 만한 자는 불과 2,3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을 읽고서는, 나는 갑자기 사등을 치며 “이 것이면 됐다”고 말하고, 함께 일일이 가려서 좋은 것을 고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고쳤다.

□ 명 조정 관료들과의 대화에서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 “중국은 남쪽으로 왜와 이웃하고 오랑캐와도 나란히 이웃하고 있는데, 교우 조선 한 나라만 한페일 뿐이다. 조선인이 돛을 타고 가면, 배가 빨라서 바람이나 비와 같다. 만에 하나라도 딴 마음을 품고 오랑캐를 위해 그 명령을 받든다면, 다만 한 명의 장수에게 명해서 침략해 오게 한다 해도, 우리의 양주와 청주, 등주 등은 모두 편안한 집이 없게 될 것이다.”
- “나는 해외에 가서야 비로소 천하가 작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국가가 오직 조선만을 두텁게 대하는 뜻은 깊고도 멀다.”